

실천으로 '깨달음 지상주의' 벗어야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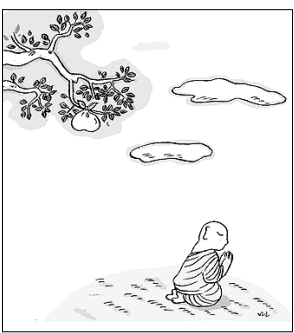
빨로띠까를 깨닫게 한 누더기와 밥그릇 스승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아난 존자가 어느 때 탁발하러 성에 나갔다가 구걸하는 어린 여자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나 불쌍했던 그를 데려다 출가시켜 동자승이 되게 하였습니 다. 이름을 빨로띠까라 부르 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아주 초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자 빨로띠까는 자기 가 입던 더러운 누더기와 찌그 러진 밥 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수도원 뒷산의 나무 가지에 매 달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긴 다른 비구들이 물으면 스승을 불러 갔었다고 대답하였습 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또 산란해져 뒷산을 올라 누더기와 밥그릇을 쳐다보 고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데 문 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저 옷 과 밥그릇을 보러 이곳까지 꼭 올 필요가 있을까, 여기를 찾아 서 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꾸짖자." 수도원에 돌아간 그는 그 뒤로 항상 곱등이 일 때마다 누더기 옷을 연상하였고 마침내 이 방법이 수행 주제가 되어 오 운이 무상한 것임을 깨달아 아 락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어 가지 수 행에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 습니다. 먼저 사람의 경향은 쉽



구걸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자신 꾸짖고 정진

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 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나 습관으로 돌 아가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실 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 내 가 왜 이런 공부들 하나 과거에 이런 것 모르고도 잘 살았는데 이런 것 수행이고 뭐고 다 그만 두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다음 으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스승이나 수행방 법은 어디에나 존재 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빨로띠까가 자신이 구걸하던 시절의 옷과 그릇을 스승으로 삼고 수행의 주제로 삼았듯 마음먹기에 따라 주변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을 뒤을 수 방법 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 다. 멀리서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에 흔히 있는 현상들을 주제로 삼아 마음을 조절하고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떻까 싶습 니다.

유마선원장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닦 아야 하나. 상구보리가 먼저인가, 하회중생이 먼저인가?'

계간 <불교평론> 봄호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이란 주제로 특집을 마련. 이러한 궁금증에 답하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줬 눈길을 모은다.

이 특집에는 모두 네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관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깨달음의 불교적 목적인가'(홍사성 불교신론 주필), '선의 깨달음, 그 정체와 문제점'(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깨달음의 불교에서 행복의 불교로'(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수행도의 다양성과 깨달음의 의미'(안성두 금강대 국제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의 논문들은 한결같이 '깨달음 지상주의'를 탈피해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깨달음에 대한 인식전환은 홍사성 주필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깨달음은 오랜 시간 좌선명상을 해야 깨닫 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한 생각' 들 리면 그만인 그런 깨달음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대자대비심으로 서원과 회향의 보살행을 실천하 는 것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다른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홍 주필은 "깨달음은 진리에 대한 인식전환이기에 경전을 읽거나 설법을 듣고도 가능하다"며 최초의 여섯 아라 한을 예로 든다.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서 교인여를 비롯한 다섯 수행자를 교화한 뒤 그 들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자 '이제 이 세상 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고 말한다."

조성택 교수 역시 '깨달음 지상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승가에서 조차 깨달음은 더욱 더 희귀한 뉴스라고 있는 지금 출가자 중심 의 '최종적 깨달음'을 위한 불교는 이미 그 존 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원호나 경허 등의 파계 행위에 대한 선불교 전통 일반의 관용적 태도는 '마음의 자유가 행 위 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책임이 있다. 할과 방은 바로 그 당시 '현장' 에 서의 일회적인 활발한 사건이다. 대승 보살 사상의 핵심은 중생 구제의 서원으로 '자신 의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 사상의 종교적 동기는 출가중심 불교의 깨달 음 지상주의의 극복에 있었다고 본다."

조 교수는 붓다가 성도 후에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것처럼 깨달음 이후의 살아가는 모습 또한 도덕적이며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수행에 대한 관점과 깨달음 이후의 뒤음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보인다.

'불교평론' 봄호 '깨달음과 수행' 특집 주요내용



참다운 대승의 수행은 깨달음과 사회적 회향을 둘로 보지 않는다. 사진은 해인사 수련회에서의 정진 모습.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인식전환... 끝 아닌 시작

수행 팔정도·사념처 닦고 보시 실천하는 일

김성철 교수는 깨달음 전후의 수행 방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견성 후에도 부처님의 자취 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의 마음 전체를 닦기 위해서는 선 수행을 통해 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 전에, 탐심과 집심을 가라 앉히는 부정관과 자비관을 뒤음으로써 우리 의 감성을 정화해야 한다. 견성 후에도 '습기 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견성 후에 보립한 다'는 말이 선가의 격언으로 회자되어 온 것은 '선 수행'만으로는 탐욕이나 분노, 교만과 같은 '감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후, 견성 후에 습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안전한 것은 부 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홍사성 주필의 견성 이후 수행론은 더욱 구 체적이다. 홍 주필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 부처로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회두가 되어야 한다. 회두 타파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대답이어야 한다"고 단 호하게 말한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란 관 념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 불교 수행은 깨달 음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이고 부처로 살기 위한 수행이며 열반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이다. 경제적 삼학과 사념처, 팔정도 이것을 대승 적으로 표현한 육바라밀은 부처로 살기 위한

수행이다." 홍 주필은 깨달음과 열반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구사론> 삼도론(三 道 論)을 예로 든다. 삼도란 견도(見道, 수도(修 道), 무학도(無學道)를 가리키는 말로 부처에 이르는 차례와 방법이다. 여기서 부처님이 설 한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견도'이고 깨달 음이다. '수도'란 알고 깨달은 진리를 실천해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회

구례 금강선원 '화두선 학교' 개설

구례 금강선원(선원장 봉산)은 매달 첫 째주 일요일 오후1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조현의원2층에서 '화두선 학교'를 연다.

강좌 내용은 △선, 인간정신의 역사 △ 모래이론(살의 구조) △6식, 7식, 8식의 특 성과 구분(의식, 생각의 구조) △화미와 화 두 특성과 구분(알아야 할 것과 알과 관계 없는 알) △화두 참구법 △아는 것과 모 르는 것의 특성 △일체자연, 관법, 거울에 비친 대상, 소위 일상사와 다른 선 △도탈 키 어려운 이유와 간파하기 쉬운 함정들

고의 경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열반과 해 탈의 경지인 '무학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안성두 연구원은 수행이란 '병에 대한 다양 한 처방'일 뿐이라고 말한다. 수행이란 하나 의 치료약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관심 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기에, 모든 수행 도는 그것에 의해 궁극적 진리가 증명되는 한 에 있어 모두 '하나의 맛(一味)'이란 것이다.

깨달음과 수행을 문제 삼을 때 약방의 감초 처럼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상구보리'와 '하 회중생'의 관계 설정이다.

홍사성 주필은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상구보리'와 '하회중생'을 선후의 문제 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대승 실 천수행의 핵심이라 할 서원과 회향의 사상은 하회중생을 통해 상구보리를 성취하라고 가르 친다. 예를 들어 아마타 48원, 약사여래 12대 원, 보현보살 10대원은 모두 하회중생으로 상 구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상이란 것이다. 홍 주 필은 "깨달음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바른 수행은 팔정도와 사념처를 닦고 보시(佈 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師)와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규정한다.

조성택 교수는 "깨달음 후에도 붓다는 팔정 도와 바라밀을 실천하였을 뿐이 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깨달음 이후 걸어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 다"고 말한다.

조 교수는 "우리가 보살로서 달 성해야 할 '영원한 현생'에서의 수행의 목표는 나와 타인의 행복 이다"며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살 겠다는 보살이라면 '행복하십시오' 라고 행복 을 기원하는 것이 더 불교적이라고 강조한다.

안성두 연구원은 "재가인 출가든 불교도가 보살적 이상을 내면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 신적, 사회적 실천에 나설 때 참다운 대승의 세계는 열리게 된다"고 거든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의심화두, 진심화두, 예고와 관심) △이 시 대 선의 의미(영성개발, 폭력과 거짓으로 부터 자유, 삶의 발견, 올바른 인생방향 제 시) 등. 참가비 무료. (061)781-0582

한국vipassana 선원 개원

한국vipassana 선원(www.vipassana center.com)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 한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새롭게 등지를 틀 고, 4월 13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원장인 묘원 법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 시~5시30분 사념처 중 선념처에 대한 법 문과 수행, 문답을 실시한다. (02)517-3052

간(肝)이

간지방간화...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 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 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반 겹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루 토종 (민속농원)

지광원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뒤으며 맑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 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를 지광원에서 경험한 통하여 얻어진 전문진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 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구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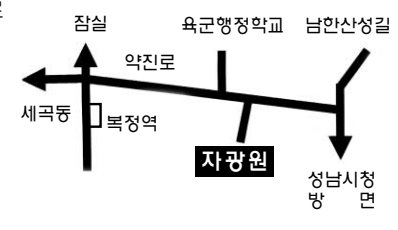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지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
- ◆ 정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도(약 7평) 24실(각실 인터존 설치) 병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 락 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북정동에 위치한 지광원입니다. (031)759-5320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연비 첫번째 전회주시민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차량전용 명단등록비는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명단등록비 051)865-9933